

# 지오팜 등 브랜드 발굴 지역경제 파급효과 높여야

해묵은 '접근성 갈등' 해법 찾아라

▶1면에서 계속

## ◆'청송처럼' 프로그램 다변화해야

무등산 지질공원을 모든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산악연맹 피길연 회장은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경관도 우수해 교육·관광사업을 활용하면 더 많은 이들이 찾을 것"이라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활용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과 관광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 회장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세대별 무등산 콘텐츠를 제시했다.

청소년층에게는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긴장·공격성 등을 야생 탐험을 통해 분출하게 하고 자연속에서 즐기는 오리엔티어링 과정을, 2030 청년층에게는 취업난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악스포츠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4050 중장년층은 건강 등산 활동(지방저하, 다이어트)과 안전 산행(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LNT(흔적 남기지 않기) 과정을, 60대 이상 시니어층에게는 노르딕 워킹 교육 등을 제시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 지질관광도시로 거듭난 청송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송은 자녀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질탐험대', 시니어 대상 '지오팜' 등 다양한 연령층이 관광과 체험,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을 끌어들이었다. 실제 빅데이터 기반 관광통계 조사분석 용역 결과, 2016년 200만명 정도였던 청송군 관광객은 지질공원 인증 이후인 2017년 450만명, 2018년에서 540만명으로 급증했다.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김영미 교수는 최근 열린 'K-그린 뉴딜,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범시민 대토론회에서 특수목적 관광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오팜이제는 천연의 지질자원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관광객들에게 지형·지질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장을 제공하

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무등산 주상절리대 감상을 위한 보행 약자의 이용 편의 제고, 젊은 층 등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고, 짧은 시간 둘러보고 다른 관광지 이동하는 단체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 제공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무등산 정상 복원을 통해 군부대 건물을 방문자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무등산 활용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계지질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기존 '지오팜'

드' 홍보와 더불어 추가적인 브랜드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무등산 지오팜브랜드에 가입한 상인 A씨는 "지오팜 브랜드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져 홍보 효과는 미미하다"며 "다양한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오팜 브랜드를 수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민 의장은 "펜션이나 농장을 청년이나 퇴직자 등에게 대여하는 지오팜, 지오팜 등 지오팜브랜드를 추가 발굴하면 지질자원 관광, 음식문화 체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50대 이상이 소풍 목적지를 무등산으로 정했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무등산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첫 4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만료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인증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요약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1월 경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하반기 해외 인력 현장실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기됐다"며 "재인증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에 주력하는 동시에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올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한다

작년 아동학대 의심신고 1,010건 보호시설 확대·시민의식 개선 앞장

광주시가 올해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1,010건으로,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43건(73.6%)이다.

이는 전년도 신고건수 858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학교·유치원 등이 쉬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줄었다가, 지난해 등교가 늘면서 신고의무자와 시민 신고가 늘어난 것 결과로 풀이된다. 학대 행위자 조치 결과는 모니터링 53.4%, 고소·고발 45% 등이다.

이에 광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적 보호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즉각 분리제재를 위한 보호시설과 가정형 보호 확대,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조기발견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시민인식 개선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영아일시보호소 1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일시보호소 1곳과 남구, 북구에 쉼터 1곳씩을 추가로 확충한다.

먼저 이달 동구에 개소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일시보호시설은 중정 연아만을 전담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남매도 같은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 남녀 27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구마다 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동·서구 외에 남구(여아)·북구(남아)에 정원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 1곳씩 설치해 이달 중순부터



선거지원단 실무역량 교육

광주시선관위는 11일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 15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양대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전문성 증(Zoom) 교육'을 실시했다. /선관위 제공

본격 운영한다.

광산구는 올해 국·시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상반기에 설치한 후 오는 7월 이후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보호받는 위탁가정 아동 320여 명(250세대)에게 올해부터 양육수당을 2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며, 2세 이하·경계선지능 아동 등 위기 아동을 위한 전문위탁가정 12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24시간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보호아동의 양육 계획을 점검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

충한다.

지난해까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총 20명으로, 신고건수 1,010건 대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1명당 50건을 약간 넘어서는 만큼 올해 1명 더 충원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5명인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3명 더 충원할 예정이다.

그간 학대조사를 하던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치료·상담·사례관리 등 재해대 방지에 주력하면서, 광주시와 함께 체력 없는 양육법을 홍보하는 등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으로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아동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예측해 자치구 직원이 방문 조사하고, 발견된 위기아동을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경찰청, 교육청, 전문기관과 함께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분기별로 운영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오선우 기자

## 전남도, 올 귀농어촌 유치 883억 지원

안정적 정착 역대 최대 주택 구입 자금 등 11건

전남도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럼'을 목표로 귀농어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올 한 해 역대 최대인 883억 원을 들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남형 귀농어촌 유치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전남에서 살아가기 지원,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귀여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건이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농촌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62억 원을 투입한다. 현장에서 귀농귀촌 유치활동과 함께 정착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은 예비(초보) 귀농어촌인의 농어촌 문화 이해와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 주민 스스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용자 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 구입 등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까지를 연이율 2%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귀농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신규로 귀여인의 집 조성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한다. 귀여인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여촌체험 후 귀여하도록 임시거처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민 기자

## 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중간보고회

시민의견 2,508건 수렴 '노선신설 49.2%' 최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도시철도와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마련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어 중간보고회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도시철도 2호선 개편 따른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해 운영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운영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역의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도시교통 수요 및 현황분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선망 구축을 위한 교통카드, 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자문을 받았다.

또 광주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바로스통광주'를 통해 2,508건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된 시민의견을 유형별로 보면 노선신설 49.2%, 배차간격 단축 26.5%, 노선변경 12.8%, 서비스 개선, 환승시스템 개선, 정류소 관련 등 기타 11.5%로 나타났다. /조기철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규인·구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권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이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에 발공 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신 214-16
2. 분묘기수: 200기
3. 분묘개장사유: 도로개설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전남 완도군 군위면 청해진서로 1702 (완도추모공원)
6. 안치기간: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 처: ☎(062) 720-7609-7117
9. 신고방법: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2022년 1월 12일  
위 공고인 (주) 금 보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신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 영입팀 / 채권추심팀  
☎ 정직원 면담 ☎ 법원지주 ☎ 시간적 효율

▶자사모임 상담▶

☎ 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씌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